

중도·청산도·유치·창평
슬로시티로의 초대

'4색 매력' 만끽하며 참 나를 찾는다



신안 증도 띄어벌 아래 눈꽃 같은 천일염을 쏟아내는 신안군 증도의 태평염전은 자연의 생명을 그대로 담고 있는 '슬로시티'로 각광받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기불황에 삶이 지치고 힘들었을까?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빨리 빨리'를 외치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생활이 지겨웠을까?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담양 창평, 장흥 유치, 신안 증도, 완도 청산이 느림에 인색했던 현대인을 자연스럽게 '슬로 라이프(Life)'로 이끌고 있다. 21개월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이곳 남도의 작은 4개 마을이 이제 느긋함과 여유 가치를 찾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로 북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15 연재를 마치며

◇'느림과 여유 찾기' 관광객 복적=지난 7월 말까지 신안군 증도와 완도군 청산도를 찾은 관광객은 28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 비해 3만여명이 더 증가한 수치다. 신안 증도의 경우 1만3천327명(14.8%)이, 완도 청산도는 1만9천309명(12.2%)이 각각 늘었다. 뱃길로 10~50분 걸리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발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육지인 담양 창평과 장흥 유치 지역도 슬로시티와 녹색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작년 대비 20% 이상 관광객이 늘어났다.

번잡스럽고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도시에서 잠시 벗어나 현대와 전통, 자연과 사람이 여유롭게 공존하

이다. 이 때문에 세계슬로시티 연맹 관계자들은 "신안의 염전은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며 "인간과 신, 자연이 함께하는 증도의 갯벌과 염전은 세계적인 슬로 시티 명소가 될 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옛날 우리의 건강 농촌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장흥군 유치와 창평은 청정환경을 갖춘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장수풍뎠이를 사육하며, 지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구사하는 이 지역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여유와 느림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슬로시티 관광지원화 사업 추진=4개 지역이 슬로시티로 지정·승인된 지 2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슬로시티와 관련한 새로운 콘텐츠는 부족한 편이다. 슬로시티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으로 인한 '반짝' 관광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금증 버리자" 전남 슬로시티 4곳 관광객 12~20%↑

자연·인문자원 콘텐츠화...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역점

는 슬로시티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방식의 '슬로 라이프(Life)'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남도 슬로시티 '4색(色)' 매력=광주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인 담양군 창평면 삼지천 마을은 도심과 가까운 탓인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고풍스런 전통가옥을 끼고 고색창연한 돌담 길을 걸다보면 발을 끌추 세우고 담장 넘어 누군가를 불러보고 싶은 충동도 느껴진다. 이곳에선 한국 전통문화에 흠뻑 빠져 살고 있는 푸른 눈의 독일인 교수 '베르너 사제' 만나볼 수 있고, 슬로푸드를 대표하는 간장과 한과, 창평엿 등을 맛볼 수 있다.

자연과 사람 모두가 아름다운 완도군 청산도는 사람이 살기 녹치지 않았던 척박한 땅에서 손수 밭을 갈아붙이고, 산을 깎고 돌을 하나하나 쌓아 만든 '구들장 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전통 장례풍속인 '초분'. 옛 전통어로방식 그대로인 멸치잡이. 청산도 푸른 앞바다에서 여전히 자맥질 중인 '해녀'. 이 모두가 눈이 시러도록 아름다운 청산도를 만들어 냈다.

자연의 생명을 담은 슬로시티 신안군 증도는 자연과 함께 휴식하고, 자연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갯벌과 염전, 그리고 습지가 공존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

이에 따라 전남도와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새로운 슬로시티 관광지원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우선 지역민 중심의 공동체 회복 및 휴먼웨어(Human Ware)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슬로시티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여 시군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독특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 등의 콘텐츠화를 통해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및 상품개발을 운영할 예정이다. 콘텐츠에 기반한 스토리텔링과 갯벌축제, 송어축제 등 지역의 자생적인 소규모 축제 발굴, 슬로시티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슬로푸드와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정착시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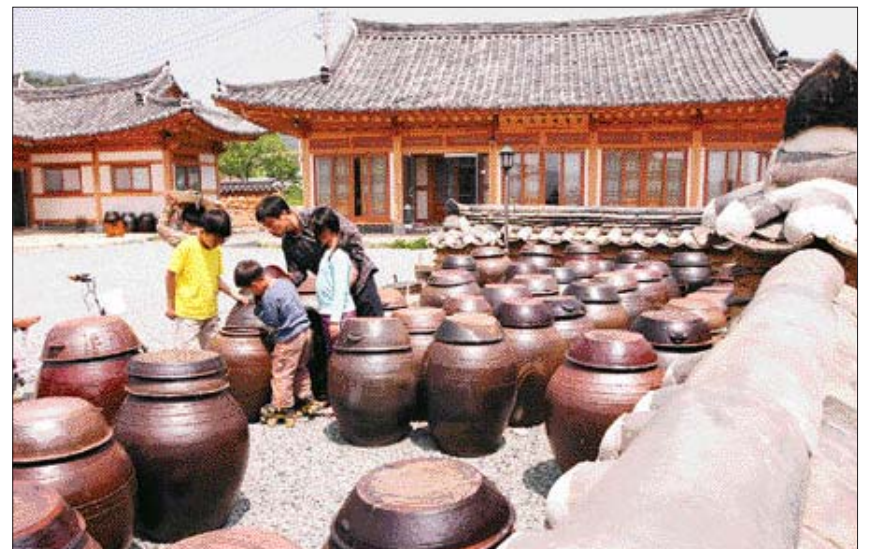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자원의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물을 적절히 변형·보완할 방침이다.

이밖에 ▲통합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슬로시티 운동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완도 청산 지난 4월19일 완도군 청산도에서 열린 '제1회 슬로걷기축제'에 참석한 내외국인 2천여명이 참석해 '느림의 미학'에 흠뻑 빠져들었다.



장흥 유치 옛날 건강한 농촌 그대로를 간직한 채 구수한 청국장장을 담아내는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의 영농조합법인 '가치산 전통마을'.



담양 창평 담양군 창평면 삼지천 마을에서 관광객들이 고풍스러운 전통가옥을 낀 3.6km의 돌담길 사이를 소달구지를 타고 전통체험을 하고 있다.

우리집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 방식의 새주소로 바뀝니다.

Q 도로명주소(새주소)란?

Q 도로명주소(새주소) 이렇게 표기됩니다.

▶ 전라남도도청 계보 설명

우리집 주소가 100년만에 새주소로 바뀝니다.

Q 도로명주소(새주소)는 언제부터 사용되나?